

#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대응… 국가적 지원·인재육성 절실”



## 인터뷰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 을)

### 꺾이지 않는 반도체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 美·中 반도체 전쟁, 韓 엄청난 기회 인재들에게 국가적 기회 부여해 대세기술 필요 사업으로 배치해야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임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뺏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 양질의 엔지니어 양성 지원 필요 ‘K-칩스법’ 시즌2 촘촘히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 기울일 것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서려면 국내 반도체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가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많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는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년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익·최영훈·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양향자 무소속 의원 프로필(광주 서구 을 1967.4)**

- 1985년 삼성반도체 입사
- 2014.1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플래시설계팀 상무
- 2016.8~2018.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8.8~2019.0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2019.07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0.05~ 제21대 국회의원
- 2020.8~2021.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0.9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 2021.4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2.6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봉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